

워킹 페이퍼

BRC-2026-W003 발행 2026-08-15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한 책에서는 아래에, 다른 책에서는 위에: 오령산의 자리가 달라진 까닭을 묻다

최연승¹ 백록담 리서치 커먼스 (BRC)¹¹ 백록담 리서치 커먼스 (BRC), 대한민국

논문 유형	접수	공개	영구 식별자
원저 논문	2026-08-15	2026-08-15	BRC-2026-W003
최종 갱신	심사 상태	라이선스	교신
2026-08-15	공개 검토 대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Baekrokdam Research Commons (BRC)

정식 주소 <https://research.baekrokdam.com/articles/wuling-san-three-burner-reorganization>

권장 인용 최연승, 백록담 리서치 커먼스(BRC). 한 책에서는 아래에, 다른 책에서는 위에: 오령산의 자리가 달라진 까닭을 묻다. 백록담 리서치 커먼스, 2026; BRC-2026-W003.

초록

가금(柯琴)의 두 책은 모두 물을 다스리는 법을 상·중·하초로 나눈다. 그런데 『상한론주』에서 하초에 있던 오령산이 『상한론익』에서는 소청룡탕과 함께 상초에 놓인다. 하초에는 다른 처방이 들어가고, 중초와 상초의 증상 설명도 달라진다. 공개 영인본과 전사본에서 두 구절을 다시 확인한 결과, 이것은 오령산 하나만 옮긴 일이 아니라 문단 전체를 새로 짰 변화에 가깝다. 왜 바뀌었는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저자의 수정인지, 후대 편집이나 판본 차이인지 알려면 더 많은 이본을 대조해야 한다. 다만 처방의 의미를 이름 하나에 붙은 고정 꼬리표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핵심어: 오령산 · 상한론주 · 상한론익 · 가금 · 원전비교 · 삼초

오령산의 자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오령산을 찾을 때 우리는 보통 “어디에 쓰는 처방인가”부터 묻는다. 그런데 같은 가금(柯琴)의 책 두 권을 펼치면 더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생긴다. 『상한론주』와 『상한론익』은 모두 물을 다스리는 법을 상초·중초·하초의 세 자리로 나누지만, 오령산을 서로 다른 자리에 놓는다. 한 책에서는 아래에, 다른 책에서는 위에 있다. 이 글은 그 차이가 단순한 표현 차이인지, 문단 전체의 구성이 달라진 것인지 확인한다. 의서의 연대와 처방 정보를 이용해 후보 문단을 찾고, ‘治水有三法’과 ‘五苓散’ 앞뒤를 전사본과 영인본에서 직접 대조했다. 검색과 자동 요약은 길을 찾는 데만 썼고, 판단은 독자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원문에 두었다.

처방은 고정된 칸에 들어가는 이름표가 아니다

가금의 의학을 연구한 학자들도 육경을 딱딱한 신체 지도로 보지 않았다. 장우창·홍원식은 육경을 병증을 구별하고 치료법과 처방을 고르는 체계로 읽었다^[6]. 이상협 역시 태양을 방광경 하나로만 좁힐 수 없으며 심·폐와 영위의 흐름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7]. 이런 독법을 따르면 처방의 자리도 고정된 주소라기보다, 어떤 증상과 치료법 옆에 놓였는지를 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책의 “물을 다스리는 세 가지 법”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보일까. 선행연구는 가금의 큰 체계를 설명했지만, 이 두 문단을 증상·자리·치료법·처방 순서로 직접 맞대지는 않았다. 이 글이 보태는 것은 거대한 새 학설이 아니다. “오령산은 하초 처방”이라는 간편한 꼬리표가 같은 저자의 책 안에서도 유지되는지, 원문 두 구절로 확인하는 작업은 질문이다.

『상한론주』에서는 맨 아래에 있었다

『상한론주』의 배열은 선명하다. 마른구역질과 기침은 상초의 물로 보고 소청룡탕을 쓴다. 명치 아래가 막히고 그득하면 중초의 물로 보고 십조탕을 둔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하초의 물로 보고 오령산을 둔다^[1]. 즉 이 문단에서 오령산은 세 칸 가운데 맨 아래에 있다. 전사본의 해당 문장과 영인본 66-67쪽(인쇄 면수 53-54)도 서로 일치했다.

대조 원문

『상한론주』 「치수유삼법」

정규화 원문 byte 98,499; 영인본 PDF 66-67쪽, 인쇄 면수 53-54

其治水有三法：干呕而咳，是水在上焦，在上者发之，小青龙是也；心下痞满，是水在中焦，中满者泻之，十枣汤是也；小便不利，是水在下焦，在下者引而竭之，五苓散是也。

번역. 물을 다스리는 데 세 가지 법이 있다. 마른구역질하며 기침하는 것은 물이 상초에 있는 것이므로 위에 있는 것은 발산시키니 소청룡탕이 그것이다. 심하가 막히고 그득한 것은 물이 중초에 있는 것이므로 가운데가 그득하면 안으로 사하하니 십조탕이 그것이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물이 하초에 있는 것이므로 아래에 있는 것은 끌어내어 고갈시키니 오령산이 그것이다.

이 구절이 지지하는 것. 이 문면은 증후-병위-치법-처방을 세 칸으로 대응시키며 오령산을 하초의 세 번째 칸에 둔다. 여기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이 판본의 배열이지, 오령산의 보편적·고정적 병위가 아니다.

『상한론익』에서는 맨 위로 올라갔다

『상한론익』을 펼치면 낯선 장면이 나온다. 상초 항목에 “물을 마시면 곧 토한다”는 증상이 더해지고, 그 옆에 소청룡탕과 오령산이 함께 놓인다. 반면 하초에는 “열이 방광에 들어가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과 계지거계가령출탕이 들어간다^[2]. 『상한론주』에서 맨 아래에 있던 오령산이 여기서는 맨 위에 온 것이다. 이 문장도 전사본과 영인본 39쪽(인쇄 면수 31)에서 확인했다.

대조 원문

『상한론익』 「치수유삼법」

정규화 원문 byte 65,836; 영인본 PDF 39쪽, 인쇄 면수 31

其治水有三法：干呕而咳，水入即吐，是水气在上焦，在上者汗而发之，小青龙、五苓散是也；心下痞硬，硬满而痛，是水气在中焦，中满者泻之于内，十枣汤、大陷胸是也；热入膀胱，小便不利，是水气在下焦，在下者引而竭之，桂枝去桂加苓术是也。

번역. 물을 다스리는 데 세 가지 법이 있다. 마른구역질하며 기침하고 물이 들어가면 곧 토하는 것은 수기가 상초에 있는 것이므로 위에 있는 것은 땀으로 발산시키니 소청룡탕과 오령산이 그것이다. 심하가 굳게 막히고 그득하여 아픈 것은 수기가 중초에 있는 것이므로 가운데가 그득하면 안으로 사하하니 십조탕과 대함흉탕이 그것이다. 열이 방광에 들어가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수기가 하초에 있는 것이므로 아래에 있는 것은 끌어내어 고갈시키니 계지거계가령출탕이 그것이다.

이 구절이 지지하는 것. 같은 표제지만 상초에는 증후와 오령산이 추가되고, 중초에는 대함흉탕이 추가되며, 하초의 증후와 처방이 함께 바뀐다. 따라서 관찰된 차이는 처방 하나의 이동보다 큰 도식 전체의 재배열이다.

오령산 하나만 옮긴 것이 아니다

표에서 오령산 한 항목만 떼어 보면 핵심을 놓친다. 『상한론익』은 상초에 증상과 처방을 더하고, 중초에는 대함흉탕을 보태며, 하초의 증상과 처방을 함께 바꾼다. 처방 하나의 병위가 이동한 것이 아니라 증후·병위·치법·처방 사이의 관계 전체가 다시 짜인 것이다. 두 책이 같은 제목 아래 하나의 도식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 비교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가금이 생각을 바꾼 것일까. 그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어느 책이 먼저 완성됐는지, 저자가 직접 확정판본인지, 후대에 문장이 달라졌는지를 아직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 반대로 오령산 하나만 옮겨졌다고 설명하기에는 함께 바뀐 대목이 너무 많다.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동기가 아니라 문장의 차이다. 저자의 수정일 수도 있고 편집이나 판본의 역사일 수도 있다. 그 갈림길을 밝히려면 더 많은 이본이 필요하다.

Table 1. 두 문면의 증후-치법-처방 배열

병위	『상한론주』	『상한론익』
상초	마른구역·기침 → 발산 → 소청룡탕	마른구역·기침·수입즉토 → 발한 → 소청룡탕·오령산
중초	심하비만 → 사하 → 십조탕	심하비경·통증 → 사하 → 십조탕·대함홍탕
하초	소변불리 → 인갈 → 오령산	열입방광·소변불리 → 인갈 → 계지거계가령출탕

주. 번역어는 비교를 위한 작업 번역이다. 처방의 현대 임상 적응증을 뜻하지 않는다.

다른 책들은 오령산을 어떻게 불렀을까

비슷한 시기의 다른 책에서도 오령산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고금명의방론』은 오령산과 진무탕을 물이 남는 경우와 부족한 경우로 대비한다. 『소아추나광의』는 아이의 설사와 소변불통에 관한 짧은 처방 항목에서, 『유과증치준승』은 소변불통과 급경풍을 다루는 자리에서 오령산을 부른다^[3,4,5]. 같은 처방도 책이 무엇을 설명하려는지에 따라 다른 이웃을 만난다. 다만 이 세 책은 가금의 문장이 왜 달라졌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라, 당시 오령산이 여러 문맥에서 읽혔다는 주변 증거다.

이번에는 확보한 영인본과 전사본만 비교했다. 현존하는 모든 판본을 교감한 연구는 아니며, 책의 정확한 간행 순서도 잠정적이다. 또한 이 글은 오령산의 현대 임상 효과나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는다.

처방 이름보다 그 주위를 읽어야 한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답은 분명하다. 오령산은 두 책에서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상한론주』에서는 하초의 처방이지만, 『상한론익』에서는 상초에서 소청룡탕과 나란히 놓이고 하초에는 다른 처방이 들어간다. 주변 증상과 다른 처방까지 함께 달라졌으므로 문단 전체가 다시 짜였다. 이 작은 차이는 의서를 검색하는 법도 바꾼다. 처방 이름이 몇 번 나왔는지만 세어서는 부족하다. 그 처방이 어떤 증상 뒤에, 어떤 치료법과 다른 처방 사이에 놓였는지가 가져와야 원문이 말하는 바를 놓치지 않는다.

선언

저자 기여(CRediT)

최연승: 개념화, Classical medical framing, Writing – review & editing · 백록담 리서치 커먼스 (BRC): 조사, 데이터 큐레이션, Validation, 초안 작성

데이터 이용 가능성

원문 재배포 대신 문서·구절·영인본 해시, 면수와 내부 평가 결정을 공개한다.

연구비

외부 연구비 없음.

이해관계

저자 조직은 한의학 임상·연구 인프라와 연결되어 있다. 이 글은 처방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AI 사용 공개

자동화 도구는 문헌 후보 라우팅, 질문 분해와 독립적 함의 검사에 사용했다. 자동 생성 답변은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고, 두 원전 구절은 해시와 영인 면수로 재확인했다. 세 개의 원자 주장은 작성 단계와 분리된 만장일치 내부 평가를 통과했다.

윤리

공개 문헌만을 사용했고 환자 자료나 임상 개입을 포함하지 않았다.

References

- 柯琴. 傷寒論注. Inspected normalized transcription and public facsimile, printed pp. 53–54. 원문

2. 柯琴. 傷寒論翼. Inspected normalized transcription and public facsimile, printed p. 31. [원문](#)
3. 羅美. 古今名醫方論. Inspected normalized transcription and public facsimile.
4. 熊應雄. 小兒推拿廣意. Inspected normalized transcription; contextual witness.
5. 王肯堂. 幼科證治準繩. Inspected normalized transcription; contextual witness.
6. 張祐彰, 洪元植. 柯琴의 의학이론에 대한 연구: 『傷寒論翼』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2;15(2):120-144. [원문](#)
7. 이상협. 柯琴의 「太陽病解」를 통한 『傷寒論』 太陽病의 개념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2;25(2):1-13. [원문](#)